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양성

이 찬 우

(인천가톨릭대학교)

《요약》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신 후, 그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성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가질 것을 요구하셨다. 이런 기간을 갖는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루고 우정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이 기간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며(마태 13,11 참조), 당신이 성부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들이 증거하기를 원하셨다(요한 17,1-26; 루가 22,39-45 참조).

교회는 사제 성소자들을 가려내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일도 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에 사제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는 하나의 장소나 물질적인 공간이기 이전에 양성 과정이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영적인 공간이자 삶의 길이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사제 지망자들은 신학교에서 사제가 하는 일과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또한 배운 바를 사제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도 아울러 배워 익혀야 한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성서를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적교육을 받는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유산에 대한 이해가 신학의 목적이며, 신학은 또한 신앙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신학으로 신앙이 돈독해지고 신앙을 힘차게 증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깊은 영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현대의 사제 양성, 62항).

사제지망자들이 신학을 배우는 신학교는 교육적인 교회 공동체, 아니 교육하는 특별한 교회공동체이다. 신학교는 교육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학교와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은 비록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지라도 모두 미래의 사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즉 미래 사제들의 인간교육과 영성교육, 지적교육과 사목교육을 위한 것이다.

사제양성과 교육은 미래교회의 사활문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회의 중대한 의무이다. 공의회는 이 의무를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고 언급한

다(제양성교령, 2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공의회가 「사제양성교령」을 발표(1965.10.28)한 후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양성」(Pastores Dabo Vobis)(1992.3.25)이 발표되기까지 사제양성에 관한 교회의 문헌이 15건이나 발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현재 교회는 교회내의 사제성소자의 감소와 사회적으로는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 시대에 사제 지망자들을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그리스도의 사제로 교육시켜야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다종교사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인 성직자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사회 안에서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제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제양성교육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가톨릭 지도자인 성직자의 양성과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등 교육과정이 어떻게 조직·운영되고 있는지를 교회의 문헌과 교회법전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한국천주교 「사제양성지침」을 통하여 한국의 신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떠한 개선의 방향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

제 8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오늘의 사회에서의 사제 양성」이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개최되었는데 시노드의 교부들은 폐막 메시지에서 사제직 지원자들의 양성에 대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복음을 배우는 학교인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부이신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제로서 교회와 세상에 좀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하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물음에 진정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사제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바로 자신

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¹⁾ 그리스도를 닮는 길, 이 길만이 사제 양성의 목표라는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제 생활과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지원자로 하여금 스승이요 사제요 목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이상에 부합하는 사제직에 도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말씀과 전례의 봉사직무와 사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의 각 분야는 모름지기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성되어야 하고 신학 연구는 물론 영성생활과 인간발달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사제양성교령, 4항).

사제직은 봉사직이다. 봉사를 떠난 사제직이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人性을 뺀 神性만의 예수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神인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오로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유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일생은 봉사에만 이유가 있다. 봉사하러 왔지 봉사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직무가 곧 사제의 봉사직무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탐구하고 성덕을 연마하면서 사제직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시노드의 교부들이 서로 다른 지역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말했듯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오늘날의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정신을 해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러한 정신이 결코 부족해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사제양성교령, 42항).

“나는 주님을 보았다”(요한 20,11)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은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처음 맡기신 임무다. 사제의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제가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서 그 사명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요한 15,2-17 참조). 이것이 신학교에서 베풀어져야 할

1) 시노드의 교부들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1990 10.28), IV.

교육의 목표다. 물론 신학교 당국자는 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실생활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신학교의 양성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교육 시켰듯이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며 교육하는 것이다.

II. 신학교 형성사

1.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전 시대

신학교는 사제직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교회가 규정한 규범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습득하는 교육기관이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의 *Seminarium*에서 유래된 말로 ‘못자리’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성직 지망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기구라는 뜻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까지는 장차 사목에 나설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영성적인 면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사제 양성제도가 없었음이 확실하다(H. Jedin, LThk 9: 647). 따라서 그때까지는 여러 장소에서 드문드문 사제 양성을 위한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3세기초까지는 성직 지망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세속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성직을 희망하는 자는 주교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직자에게 필요한 교의 등을 가르쳤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신앙 생활이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성직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몇몇 사람들은 성서와 철학 등에 있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지만 6세기까지 별다른 교육이 행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6세기초에 생긴 주교학원(主敎學院)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 학원을 기점으로 하여 후대에 대학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흔적을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노시대의 hippo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K. Honselmann, LThk 3, Domschulen 501), 성 체사레오(503-542)시대에 있었던 프로뱅스 주교학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Die Geschichte der Kirche Bd 1: 436). 스페인에서

는 톨레도 교회회의 이후 성직자 양성계획이 점차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자기 자녀들을 성직 계급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성직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삭발례를 받게 하였으며(최저연령 12세) 교회 기관에 속하는 건물 안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들은 18세에 이를 때 대품과 혼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했다(K. Honselmann, Domschulen: 502). 이와 같은 학원은 당시 제국의 각 지방 여건에 따라 제각기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교육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는 처음으로 전 교회의 사목자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법적인 교육제도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이 공의회의 결의문 제18조는 주교좌 성당에 교사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사는 그가 봉사하는 교회의 성직자와 가난한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칠 것이다(Qui clericos ejusdem ecclesiae et scholares pauperes gratis docet)”(H. Jedin, Seminar: 647). 또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는 그 결의문 제11조에서 “모든 수도(首都) 교회는 신학자들을 등용하여 사제들과 다른 이들에게 성서를 강의하고 특히 사목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교육시키도록 할 것이다”(H. Jedin, Seminar: 647)라고 부언하였다. 이상의 공의회 결의문을 참작컨대 아직도 정규적인 성직자 교육은 구상되지 않았고, 단지 성직자들의 큰 무지의 공백을 메우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신학교들은 13세기부터 대학교 체제의 일부가 되었으나, 대학교들은 수도원학교와 주교좌성당 학교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신학대학은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과 나란히 이들 대학교에서 자리를 굳혔다. 파리대학과 옥스퍼드대학 같은 몇몇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들은 신학교육으로 매우 유명하였다. 12세기에 파리대학의 경우 신학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10년이 요구되었는데, 성서해석과 교의신학이 교수내용의 주종을 이루었으며 교수방법으로는 강의와 토론이 사용되었다. 16세기 이전에 창설되었던 그 밖의 유명한 신학교들은 로마(1303), 빠도바(1363), 에르푸르트(1379), 하이델베르크(1385), 라이프치히(1409), 루벵(1431), 프라이부르크(1457), 튀빙겐(1477)신학교 등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 직전 영국의 폴(Pole)추기경은 1556년에 로마에 새로운 형태의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주교가 주관하는 성직자 양성소이다(K. Honselmann, Domschulen: 648). 1563년에 비오 4세 교황에 의하여 설립된 로마 대신 학교(seminarium romanum)는 예수회 회원들에 의해 교육되었는데 후에 폴 추기경이 세운 신학교와 합병되었다.

2. 트리엔트 공의회

사제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에 대한 교회의 의지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 문헌 제18항(De formatione)에서는 신학교를 “*Dei ministrorum perpetuum seminarium*(하느님 사제들의 영원한 신학교)”라고 부르고 있으며, 모든 주교들이 장래 사제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학교에서는 12세 이상의 소년들이 앞으로 수행할 교회 봉사를 위해서 공동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장래 성직에 필요한 언어, 전례 및 기타 실천적 지식을 연마하였다. 그러나 주교는 주교좌 성당 근처에 신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였지만 서품지원자들이 이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은 전혀 새로운 성직자 양성교육에 관한 언급이 아니고, 다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형태를 쇄신하는 한편 재확인했을 뿐이다. 즉 원칙적으로 각 교구에 한 개의 신학교를 설립 운영토록 하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구별로 혹은 교구가 연합하여 하나의 신학교를 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합법적 혼인에 의한 자녀로서 12살 이상인 자 등 그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의회의 신학교 설립 결정이 비교적 빨리 진전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6세기에 신학교들이 처음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와서야 술피스회의 노력으로 신학교들이 설립되고 지속되었다. 독일에서는 종합대학과 예수회신학원들이 신학교의 임무를 대행하는 형편이었다. 유럽 밖에서 신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M. Barbara, 1940: 215-221).

3. 한국 천주교회 신학교 역사

한국 천주교회의 신학교 역사는 이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천주교에 대한 조선왕조의 탄압정책이 계속되던 시기에는 국내에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불가능하였다. 1836년 모방(Maubant)신부는 김대건(金大建), 최양업(崔良業), 최방제(崔方濟) 등 세 소년을 선발하여 중국 마카오(Macao)로 보내어 신학교육을 받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1830년대에 앵베르(Imbert) 주교가 정하상, 이신규 등을 뽑아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쳐 빠른 시일 안에 신부로 키우고자 하였으나 1839년의 기해박해로 앵베르 주교와 정하상이 순교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신학 교육은 1855년부터 시작되었다. 철종이 즉위한 이후에 천주교 박해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1855년 충청북도 제천 배론²⁾에 최초의 신학교인 성 요셉 신학당을 세워 신학교육에 착수하였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신학교 교장 및 교수들이 체포되어 순교함으로써 폐교되었다. 그 후 1885년에 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성심신학교를 강원도 원주 부흥골³⁾에 설립하였다. 1885년도는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못했던 때였으므로, 교회 당국은 교회활동의 중심지였던 서울을 피하여 이곳에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학교 설립으로 인한 관청과의 마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불조약(韓佛條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자, 이 신학교를 서울 용산(현 용산구 원효로 4가 1번지)으로 이전하고 중등과 3년, 철학과 2년, 신학과 3년의 일관된 교과과정을 두게 되었다. 이 신학교에 중등과를 부설하게 된 것은 당시 국내에 중등교육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천주교회의 발전과 함께 1914년에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 출신의 학생들을 위해 대구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설립되고 1927년에는 함경남도 덕원에 새로운 신학교가 설립되어 북한지방 출신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1942년에 예수성심신학교가 폐쇄

2) 舟論, 現 堤川郡 鳳陽面 九鶴里.

3) 現 驪州郡 康川面 釜坪里. 당시 조선교구의 백규삼(白圭三, Blanc)주교는 마라발(Maraval, 徐)신부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 학교가 서울로 이전된 후 초대교장으로 리우빌(Liouville, 柳)신부가 취임하였다.

되자 신학생들은 덕원신학교에 수용되어 공부하거나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학교의 재 개교를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아 민족 해방이 이룩되기 직전인 1945년 2월 23일 경성천주공교신학교(京城天主公敎神學校)로 개칭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교육과정은 예과 4년, 고등과 2년의 중등교육과정과 본과 4년, 그리고 연구과 2년의 고등교육과정을 두게 되었다.

1945년 민족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다시 학교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재개교한 천주공교신학교는 본과 4년, 연구과 2년 과정을 두었다. 경성천주공교신학교는 1947년 4월 30일 ‘문고 제31호’에 의해 경성구천주교유지재단이 설립 주체가 되어 성신대학(聖神大學)으로 승격 인가되었으며, 신학과 4년, 연구과 2년의 과정을 두었다. 그러나 6.25 동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하게 되었고, 1951년 6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재개교하였다가 같은 해 4월 5일 부산 영도에 가교사를 건축하여 이곳에서 수업을 계속하였다. 1951년 12월 31일 교육법 시행령(문고 제 1194호)에 따라 연구과를 폐지 개편하게 되었지만 6년의 교육과정은 고수하였다. 1953년 9월 15일 서울로 복귀하여 다시 정상교육을 시작하였고, 1954년에는 의학부(現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신학부 편제를 6년제로 정식 개편하여(문고 146호) 신예과 2년과 신학과 4년으로 하였다. 1959년 교명을 가톨릭대학으로 변경하여, 신학부와 의학부의 편제를 두게되었다. 1962년 3월에는 광주에 대전신학대학(現 광주가톨릭대학교)을 설립하여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지역의 신학생을 교육하게 되었다. 그후 1982년 3월 1일에 대구에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83년 12월 7일에는 수원에, 그리고 1991년 3월에 부산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사제성소의 증가로 1993년 3월 1일에 대전가톨릭대학이 설립되었고 1995년 12월 29일에 인천가톨릭대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국내에는 7개의 신학교가 사제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7개 신학교의 신학생 숫자는 모두 1,835명이다.⁴⁾

4) 1997년 말 통계에 의하면 7개 대신학교의 입학정원은 총 480명이며 학부생은 858명. 대학원생 383명이며, 수련 및 군 입대 등의 휴학생이 594명으로 재적 총 학생 수는 1,835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에 수사가 221명, 수녀 45명, 평신도 39명이 포함되어있다.

III. 성직자 양성

교회의 쇄신은 성직자들의 활동에 따라 좌우되므로 현대세계 안에서 성직자 양성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양성교령」을 통하여 신학교에 관한 규정과 가르쳐야 할 과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1965년 10월 28일 「사제양성교령」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이 교령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교황께서 직접 또는 가톨릭 교육성을 통하여 사제 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⁵⁾ 이제 교회의 문헌들을 통하여 교회가 요구하는 사제 양성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제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 대신학교

교회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직 지원자들을 위하여 대신학교와 수도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으며(교회법 제237조; 사제양성교령, 4항) 제8차 세계주교시노드(1990. 10.1~10.28)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사제 양성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대신학교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공동체 생활과 교계적인 생활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라는 것을, 또한 사제 양성에 온전히 몸바친 장상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제직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기관은 그 동안 수 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훌륭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5) 「사제양성교령」(1965. 10.28) 발표이후 현재까지 교회가 신학생 교육에 관하여 언급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직무 사제직, 세계주교 대의원회의(1971), ②신학교의 철학교육에 관한 훈령, 가톨릭 교육성(1972), ③독신생활 양성지침, 가톨릭교육성(1974), ④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가톨릭교육성(1975), ⑤미래 사제들의 신학교육에 관한 서한, 가톨릭교육성(1976), ⑥요한바오로2세의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체(1979), ⑦신학교의 전례교육에 관한 훈령, 가톨릭교육성(1979), ⑧신학교의 영성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 가톨릭교육성(1980), ⑨사제양성의 기본지침, 가톨릭교육성(1985), ⑩사회홍보수단에 관한 사제양성지침, 가톨릭교육성(1986), ⑪대신학교 교육지침, 인류복음화성(1987), ⑫지적·영적교육에 있어서 동정 마리아에 관한 회람, 가톨릭교육성(1988), ⑬사제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지침, 가톨릭교육성(1988), ⑭사제양성에 있어서 교부연구에 관한 훈령, 가톨릭 교육성(1989), ⑮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양성(1992.3.25).

세계 곳곳에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시노드의 교부들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 1990. 10.28, 건의안: 20항). 신학교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전진하는 교육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는 주님께서 열두 사도들에게 특별히 시키셨던 양성의 경험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처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설립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신학교는 그 핵심적인 본질상 끊임없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도들의 공동체의 명맥을 교회 안에서 나뉘대로 이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신학교는 자체 내에서 신학생들이 교회의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신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진정한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깊은 우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굳게 뭉쳐진 공동체”(건의안: 20항)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학교는 교육하는 특별한 공동체, 즉 미래의 사제들의 성소를 후원해주면서 성소를 판별해 주고, 성소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성품성사 만이 줄 수 있는 은총과 책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와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나누어 실천하고 그러한 사명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또한 신학교는 교육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은 비록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모두 미래의 사제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즉 미래의 사제들의 인간교육과 영성교육, 지적교육과 사목교육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1992. 3.25: 61항).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는 각 교구의 능력과 신학생들의 숫자에 따라 교구가 독자적으로 대신학교를 설립하거나 초교구적(지역, 중앙, 전국)신학교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는 민족과 지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일반 법규만을 제정해주고 국가별, 또는 전례 의식별로 사제양성계획을 세우고 교황청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가톨릭 교육성, 1985. 3.19, 제1장 총칙, 1항). 한국 천주교회는 공의회의 「사제양성교령」과 교회법전⁶⁾ 및 가톨릭 교육성에서 발표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에 따라 「한국 사제 양성지침」⁷⁾을 마련하였고,

6) 성직자 양성에 관한 교회법은 교회법전 제232~272조에 규정되어있다.

7) 한국천주교회, 사제양성지침(Ratio Formationis), 1995, 춘계주교회의 승인.

각 대신학교들은 이 지침서에 의거하여 각자 학교의 실정에 맞는 영성 교육과 지적, 사목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사제 양성의 여러 영역

1) 사제 양성의 기초인 인간 교육

교황께서는 ‘인간 교육이 사제 양성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사도적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제 양성을 할 때 인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제 양성의 전과정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현대의 사제양성, 1992. 3.25: 43항). 사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적인 완전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완전함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제에 대한 인간교육은 그것이 사제가 사명을 수행하는 대상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사제들은 단지 올바른 자아 성장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많이 계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를 책임지고, ‘친교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현대인들은 종종 획일화와 고독의 포로가 되곤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더 친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웅변적인 표지 중의 하나이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제직 지원자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며, 이러한 정서적인 성숙은 책임 있고 참다운 사랑으로 교육할 때 얻어질 수 있다.

2) 영성교육

만일 인간교육이 인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수용하는 인간학적인 맥락에서 이루

어진다면 이러한 인간교육은 영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영성교육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 영성생활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친교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성생활의 교육과정은 이처럼 근본적이고 종교적인 욕구에서 비롯되고 전개된다.

영성교육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사제라는 신원과 사제직에서 비롯된 의미와 그 특징에 따라 짜여져 있어야 한다. 시노드의 교부들은 사목교육을 하는 데 있어 영성 교육이 빠진다면 그것은 기초 없는 교육이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므로, 영성교육은 사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건의안: 22, 23항). 공의회 문헌에서는 영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찾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하느님을 찾는 주제와 함께 영성의 전통적인 주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영성생활은 그리스도를 찾는 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스승을 찾고, 발견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공의회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은 앞으로 세 가지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묵상하는 것과, 교회의 거룩한 신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작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제직 지원자들을 위한 영성교육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 3대 가치이자, 요구사항이다(현대의 사제양성: 46항).

영성교육의 내용으로는 인간성숙과 사랑의 봉사를 강조한다. 사제는 인간적인 근원과 인간 상호간의 유대를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교회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전인적인 사제를 원하므로 신학생들은 “마음의 성실성, 변함없는 정의감, 인내와 자기 통제력, 약속의 이행과 행동의 정중성, 예의와 단정함”(사제양성교령, 11항; 한국 사제양성지침, 29항)과 “형제적 봉사정신, 근면정신, 협동정신”(사제양성의 기본지침, 51항)의 덕목을 갖추 수 있도록 영성교육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신학생들은 스스로를 낮추시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명을 배우도록 교육되며, 복음적 가난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필요 이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검소한 생활을 익힌다(사제양성의 기본지침, 50항; 현대

의 사제양성, 30항; 한국사제양성지침, 31항). 특히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독신생활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제로 선발하므로, 신학생들은 독신생활을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37조; 사제양성교령, 10항; 사제직무교령, 16항; 한국사제양성지침, 32항).

3) 지적교육

지적교육도 그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인간교육 및 영성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적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전개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직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더 하느님의 신비들을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만 한다(현대의 사제양성, 51항). 오늘날의 상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과 이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믿을 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제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실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소를 키워나가는데 결코 외적이고 이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미래의 사제들은 공부를 통해서, 특히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영성생활에서도 성숙할 수 있게 되며, 장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목직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복합적인 목적인 동시에 단 하나의 목적인 것이다(사제양성교령, 16항). 지적교육이 사목적으로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성적인 여정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식을 단순한 관념적인 것으로만 보는 사고에서 탈피하고, 마음으로

보는 법을 터득하여 우선 자신이 하느님의 신비를 정확히 보고, 그 신비를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51항).

한국천주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교육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교회법이 요구하고, 공의회와 기타 교회의 문헌들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한국사제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를 근거로 각 신학교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 신학교 별로 교과과정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제양성지침」에 언급된 필요과목과 학과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어문교육에서는 국어를 비롯하여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전하는 한문과 철학, 신학 및 성서공부를 위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기타 외국어도 학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양과 교회교양 과목을 설치하여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교양과 신학교육의 전과정을 개괄할 수 있는 신학입문을 교양과정에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249조; 사제양성교령, 13항; 사제양성의 기본지침, 73항; 한국사제양성지침, 38.39.40항).

신학교의 철학교육은 올바른 인간 이성활동이 계시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인간자체, 인간과 세계의 관계 및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인간학, 형이상학 등을 동서양철학과 함께 가르치고, 현대철학의 동향과 사조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친다(교회법 제251조; 현대의 사제양성, 52항; 사제양성교령, 15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1항).

신학의 모든 과목은 성서에 바탕을 두고 성서로 조명되어야 하므로(교회법 제252조 2항; 사제양성교령, 16항; 현대의 사제양성, 54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2항) 성서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주석의 능력도 길러줌으로써, 신학생들이 성서를 신학공부와 영성생활과 복음선포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사제양성교령, 16항; 계시현장, 23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2항).

조직신학 중 교의신학은 계시내용을 성서에서부터 고찰하고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의사를 통하여 진리의 전승을 배움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교회법 제252조 3항; 사제양성교령, 16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3항), 윤리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덕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계시의 빛으로 인간 삶에 필요한 덕을 닦으면서 인간 생활의 여러 문제를 해명하고 구원의 진리를 인간 현실의 여러 조건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가르친다(사제양성의 기본지침, 79항; 현대의 사제양성, 54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3항).

영성신학은 참된 목자의 삶은 참된 영성생활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사제직에 관한 영성뿐 아니라 다양한 수도생활의 영성에 관해서도 가르치며, 신학생들이 이론으로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참다운 목자가 되도록 지도한다(현대의 사제양성, 45-47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4항).

전례학은 교회의 신앙과 영성생활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전례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신비가 실현되는지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며, 전례채신과 토착화의 윤리를 가르쳐 전례의 주례자인 사제가 자기가 행하는 바를 알도록 한다(전례헌장, 2.10.14-16.23.37-40항; 사제양성교령, 16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5항).

교회사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특히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뛰어난 주인들인 교부들에 대하여도 심도있고 자세하게 가르친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직접 물려받은 한국교회의 역사도 정통하게 알도록 한다(사제양성교령, 9.16항; 한국사제양성지침, 46항).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특히 사제가 이를 출전 수범하여 지켜야 하므로 이를 숙지토록 한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므로 교회법의 기본정신에 따른 법리론의 설명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와 규율이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상응하는가를 깊이 깨닫도록 가르친다(사제양성교령, 16항;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II; 한국사제양성지침, 47항).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므로 미래의 사목자가 될 신학생들이 선교사로서 적절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선교신학, 선교역사와 타종교에 관한 교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선교교령, 2항; 35항; 55항; 한국 사제양성지침, 48항).

대신학교의 목적은 사목자 양성이므로, 사제양성계획 전체가 사목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사목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 문화상황과 교회상황을 복음에 미루어 판별할 수 있도록 사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목의 이론과 실

천방법을 습득토록 사목신학은 물론, 교리교수법, 설교학, 사목상담 등을 가르치고, 그 외에도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일반적인 지식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교회법 제255-256조; 사제양성교령, 4.19.20항; 현대의 사제양성, 55.57항; 사목현장, 62항; 한국 사제양성지침, 49항).

이밖에도 신학생들은 보조과목으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봉헌생활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하고, 타종교와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연구도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문화와 문화재에 관하여 연구하고, 사회홍보수단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사목자로서 사회홍보수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는 요구하고 있다(사회홍보수단에 관한 사제양성지침, 1.9항; 한국사제양성지침, 50항).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은 연구심을 향상시키고 한 주제를 학문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주제를 정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학문은 신앙을 설명하는 능력으로 종합되어야 하므로, 부제서품 전이나 사제서품 전에 종합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현대의 사제양성, 54항; 한국사제양성지침, 51항).

한국의 대신학교들은 위에 언급된 교회법의 규정 및 사제양성에 관한 교회의 문헌들과 한국천주교회 사제양성지침에 의거 7년 과정(대학 4년, 대학원 3년)의 교과과정을 편성 각 대신학교 별로 운용하고 있다. 이 표준 교과과정은 7개 대신학교 총학장들의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전체 표준학점 수를 180학점으로 정하고, 각 대신학교가 고유한 설립 취지와 특성을 살려 학과목 수를 정하고 상한선 210학점, 하한선 170학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로 마련된 표준 교과과정은 학과목수와 학점수를 줄이고 영성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 물론 표준 교과과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각 대신학교들이 이를 기초로 하여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사목교육

사제직 지원자들에게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그들이 착한 목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직 지원자들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현대의 사제양성, 57항; 한국사제양성지침, 52항). 공의회 「사제양성교령」에서는 “대신학생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스승이시요, 사제이시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영혼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제양성교령, 4항)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인간교육과 영성교육 및 지적교육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동시에 그 모든 교육들이 지극히 사목적인 성격을 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목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사제직 지원자들이 사목실습을 할 때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점진적으로 또한 항상 다른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분명하게 가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교육을 그저 사제직 지원자들에게 몇 가지 사목적인 기교나 가르치는 수련과정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한 목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들을 충분히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현대의 사제양성, 57.58항).

신학생들이 사목적인 경험을 쌓을 장소와 봉사의 종류를 선택할 때 본당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현대의 사제양성, 58항). 왜냐하면 본당은 서로 다른 수많은 사목적인 경험들로 이루어진 중요한 세포로서, 미래의 사제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적절한 사목실습을 하고 대신학교와 교구가 협의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사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교회법 제258조; 사제양성교령, 21항; 현대의 사제양성, 58항; 한국사제양성지침, 53항). 이러한 사목실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신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분명히 직무와 연관된 성격을 띠도록 해야 한다.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사목교육의 요청에 따라 신학생들이 방학을 지내는 방법과 본당에서의 사목실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학 전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후에는 자신의 방학생활보고서와 본당주임사제의 ‘방학생활증서(testimonium)’를 받아 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방

학 중에 현장체험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의 봉사를 실습하고 방학 후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는 교구와 협조하여 신학생들이 군생활을 포함하여 신학교를 떠나있는 동안에 사회체험(moratorium)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고 있다.

5) 사제 계속교육 - 재교육

(1) 계속 교육의 필요성

교회는 성직자 교육을 3단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즉 성소계발, 사제양성, 서품후의 교육 등을 말한다. 이 중 사제들의 계속교육은 개인의 사제직 성장과 활동은 물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현대의 사제양성, 70항). 사제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훌륭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은총들을 성사적 은총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계속 교육을 해야 하는 그 본래의 근거와 최초의 동기는 바로 성품성사의 역동성에 있는 것이다.

계속교육은 사제 자신이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 모든 삶은 성숙해지기 위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길인데, 성숙이란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계속교육은 하느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내지는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교육은 성사를 통해 받은 선물과 사도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언제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하지만, 특히 오늘날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대상인 개인과 민족들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의 절박한 임무인 “새로운 복음화”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사제서품을 받기 전의 교육과 받은 후의 교육이 서로 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깨닫고 눈여겨보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계속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되풀이가 되어서도 안되며 단순히 새로운 적응방법으로 재검토하거나 확대시켜서도 안된다. 계속교육은 비교적 새로운 내용과 특히 새로운 방법으로 통일성 있고 절대 필요한 양성과정을 갖고 전개되어 가야 한다. 모든 계속교육은 신학교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또한 신학교 교육과 결코 단절되지 않는 가운데 적응과 쇄신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현대의 사제양성, 71항).

계속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사목 기법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 소위 직업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계속교육은 사제양성의 모든 측면들, 즉, 인간적, 영성적, 지적, 사목적 측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그러한 측면들이 목자로서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더욱 밀접하고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완벽하게 지속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현대의 사제양성, 71항).

(2) 계속교육의 대상

사제 계속교육은 사제가 어떤 연령층에 속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늘 사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사목직의 수행단계와 사목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현대의 사제양성, 76, 80항). 사제 계속교육의 대상과 단계와 분야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ㄱ. 새 사제들의 교육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목 일선에 파견되는 시기는 새 사제들에게는 물론 이들을 맞이하는 교회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피교육자의 위치로부터 사목자의 위치로 바뀌어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 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 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연속과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한국 사제양성지침, 58항).

ㄴ. 보좌 신부교육

보좌시키는 자립적 사목활동의 책임을 맡을 수 있기까지 수습 기간의 성격을 지닌다. 교구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충분한 수습기간을 두어 독자적 사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 연수과정을 둔다. 현재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3~6년간의 보좌기간을 갖고 1~2년에 한 번씩 본당을 옮기며 사목경험을 쌓고, 교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한국사제 양성지침, 58항).

ㄷ. 계속교육

1년에 1~2회씩 마련되는 교구 및 지구 단위의 연수회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사목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ㄹ. 특수교육

교회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의 사목적 요청이 있거나 그러한 방면에 소질을 지닌 사제들을 위하여 특수기관 및 대학에서 훈련 또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배려한다. 현재 교회와 사회는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정보화, 매스컴 등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인적 및 물질 투자를 시행한다.

ㅁ. 사제 평생교육

계속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신학교들이 협력하여 전국 규모의 기구 또는 몇 개의 교구가 연합하여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한다(한국사제양성지침, 60항).

IV. 마 칙 글

오늘의 세상은 온통 변화무쌍한 소용돌이와도 같다.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은 정신문화를 둔하게 만들고, 안락함과 쉬운 것만을 찾는 인간의 마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을 거부한다. 회생과 극기란 잊혀져 가는 종교적 유물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고집이라고 한다. 할 수만 있고 해도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나 감행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될 것은 기필코 해보고 싶은 것이 현대인 특히 젊은이들의 심리다. 그래서 구세대의 윤리관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푸념거리에 불과하다. 이런 속에서 세대 차를 부르짖으며 기성 윤리관에 도전하는 것이 현대인의 사명인양 주창되는 세상에서 젊은 신학생들도 자라난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와 입시 지옥의 현실 사이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란 학

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가 되고자 한다. 사제 지망 학생들도 학교수업과 수학능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오로지 신학교 입학시험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신앙생활도 면제를 받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7년(군복무기간까지 합하여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교회는 안고 있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학교라면 거의가 인격완성의 도장이 아니고 지식전달의 기관이 되어버린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그 젊은이들을 신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극도로 각박해진 오늘의 생활양식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현세적 쾌락위주의 안락한 생활에서 얼마나 큰 악이 발생되며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실로 올바른 교육은 무엇이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교회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제양성의 영역은 사제양성의 기초인 인간교육과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찾는 영성교육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교육을 함께 하는 일이기때 그 어느 교육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 함께 사목자로서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교를 이루기 위한 사목교육도 함께 하여야 하므로 7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각 신학교들은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1-2년은 별도의 장소에서 영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 후 1년간은 학과 공부를 중단하고 수련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교육은 사제양성의 영역 중 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오랜 경험과 그리고 교과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공을 들여온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며, 각 지방교회의 고유성과 각 신학교의 설립취지와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학교 간 교수의 교류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사제양성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부분은 지적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교육과 영성교육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와 교회는 지식이 풍부한 성직자보다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영성이 깊은 성직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학교 교육은 지적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인간교육과 영성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회 법전(라틴어-한국어대역판) 1990.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1965).

_____,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_____,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_____,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_____,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3),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3. 2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9),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
(1979. 4. 1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톨릭 교육성(1985),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iam lustra)」(1985. 3. 19),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_____(1976), 「미래 사제들의 신학 교육에 관한 서한(Tra imolteplici segni)」(1976. 2. 22),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_____(1972), 「신학교의 철학교육에 관한 회람(En cette priode)」
(1972. 1. 20),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79), 「신학교의 전례교육에 관한 훈령(In ecclesiasticam futurum)」 (1979. 6. 3),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75),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법학 교육에 관한 회람 (Prostremis hisce annis)」 (1975. 4. 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_____ (1974), 「독신 생활 양성 지침(II presente sussidio)」 (1974. 4. 11),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80),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The document)」 (1980. 1. 6),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88),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지침(In questi ultimi decenti)」 (1988. 12. 30),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89), 「사제 양성에 있어서 교부 연구에 관한 훈령 (Inspectisdierum)」 (1989. 11. 10),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86), 「사회 홍보 수단에 관한 사제 양성 지침(Dio sommo bene)」 (1986. 3. 19),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_____ (1988), 「지적 영적 교육에 있어서 동정 마리아에 관한 회람 (La seconda assemblea)」 (1988. 3. 2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인류복음화성(1987), 「대신학교 교육 지침(La Congregazione)」 (1987. 4. 25),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세계주교대의원회의(1971), 「직무 사제직(Ultimis temporibus)」 (1971, 11, 30),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한국천주교회(1995), 한국 사제 양성 지침(Ratio Formationis),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Barbara M.(1940), "L'origine dei seminari a norma del concilio di Trento", in CivCatt. vol. 91, 3.
- Coriden J., Green T. and Heinstschel D.(1992),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 Honselmann Klemens(1959),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3, Freiburg i.Br.
- Jedin Hubert(1964),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9, Freiburg i. Br.